Art D-RAM ‹실연활용법›

Art D-RAM ‹실연활용법›

기획의도

박혜수 작가가 2013년부터 진행한 '대화' 프로젝트는 두 번째인 'Good bye to Love 굿바이 투 러브'는 관객들에게 헤어진 연인이 남긴 물건과 사연을 모으는 설문 ‹실연수집›을 진행해 오고 있다. 서울대미술관 MoA(2013)과 챕터투 윈도우 전시(2017), 부산현대미술관(2019) 기획전시를 통해 1,000여 명의 사람들부터 사연과 물품을 모아온 7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박혜수 작가는 해당 설문을 재해석한 사진집을 고(故) 임형태 작가와 진행한 바 있으나, 임형태 작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사진집은 중단됐다. 그렇게 중단된 프로젝트가 금천구의 아트센터 예술의 시간에서 2022년 개인전 « 모노포비아-외로움 공포증 »으로 마무리할 기회가 주어졌다. 박혜수 작가가 물품과 사연들을 수집해 오면서 겪었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동료를 잃고 한동안 배회하던 내용들은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미래와 감정을 희생해 온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옛 기숙사 공간에서 신작들로 제작될 예정이다.

2022년 개인전에 앞서 2021년 6월부터 6개월간 5명의 다원 예술가들에게 설문 ‹실연수집›을 공유하고 실연을 연구하는 모임 Art D-RAM ‹실연활용법›을 사전에 진행했다. 설문의 내용을 보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기대하는 의도로 기획된 이번 연구 랩은 예술의 시간 3층의 '카페독산'에서 진행됐으며, 5명의 각기 다른 다원예술가(김지용, 박시호, 박혜수, 안부, 윤수희)의 회화, 사진, 사운드, 출판, 퍼포먼스, 연극, 신곡(콘서트), 카페 디저트 개발 등을 공개 발표했다.

영상 기록 관람

1. 실연 극복 코스

메뉴 개발 협업 카페독산(김종성 바리스타), 이상미 큐레이터
일시 2021.08.12.–09.04.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Elisabeth Kubler-Ross)의 상실과 슬픔의 5단계를 실연에 적용하여 '부정-분노-협상-우울-수용'으로 구분한 디저트를 카페독산과 협업하여 개발했다. 카페×연극 ‹실연 극복 매뉴얼›의 중요한 매개로 사용했다.

우울 코스(Depression)

결국 협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극심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난다. 이 단계에선 증상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 본인도 알아차릴 수 있다. 모든 일에 초연해지고, 웃음을 잃고 하루 종일 멍한 표정으로 있거나 아예 울어 버리기도 한다.

디저트 럼 초콜릿+아이스크림, 솜사탕+에스프레소

2. 연극×카페 ‹실연 극복 매뉴얼›

기획 박혜수
배우 박시호, 안정호
진행 이상미 큐레이터, 이수현(실연조작단)
일시 2021.08.28.

설문 ‹실연수집›의 일부 사용을 차용하여
분노와 우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카페를 방문하는 관객에게 시나리오를
전달하고 즉석에서 찾아가는 1:1 연극이
시작된다. 배우들은 해당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어, 실연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관객에게 구하고, 관객들은 배우들의 고민을
듣고 자신만의 처방을 내려 준다. ‹실연
극복 코스›를 함께 주문하여 관객과 배우가
자연스럽게 연극에 몰입하도록 유도했다.
(예술의 시간 유튜브에서 편집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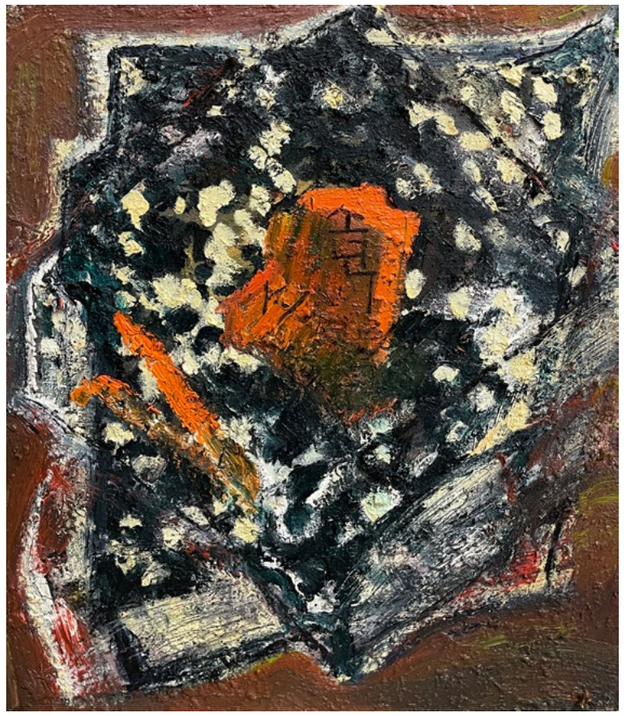
‘우울’
(관객이 테이블에 앉으면,
시나리오가 적힌 카드가 전달된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그와 그녀. 다가올 그녀의 생일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갖고 싶은 걸 물으니, 목도리를 갖고 싶다고 한다. 그는 그날로 뜨개질을 배워 검정 목도리를 뜨며
설레어 했다. 하지만 막상 생일이 다가오자 그녀는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누군가에게 선물이나
축하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지만 그녀는 완강했다. 결국
목도리는 그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그녀의 옷장에 걸렸다. 몇 달 후, 그녀는 더이상 열등감을 견딜
수 없다며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라며 헤어짐을 통보했다. 이별을 통보받은 그날 밤,
그는 하염없이 울며 잠들지 못해 뒤척였다. 그러다 문득 옷장에 걸려있던 목도리가 눈에 들어와
목도리를 감고 잠이 들며 그의 꿈을 꾸었다. 그는 이렇게 살다간 스스로를 고립시킬 것 같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좀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랜 지인인 당신에게 도움을 청한다.
(잠시 후 그가 당신의 테이블에 앉는다.)

3. 전시 ‹그리는 시, 기리는 마음›

작가 김지용
일시 2021.09.29.–10.30.

‹사랑의 모양› 2021, 캔버스에 유채, 91×73cm
‹주워 온 마음› 2021, 캔버스에 유채, 53×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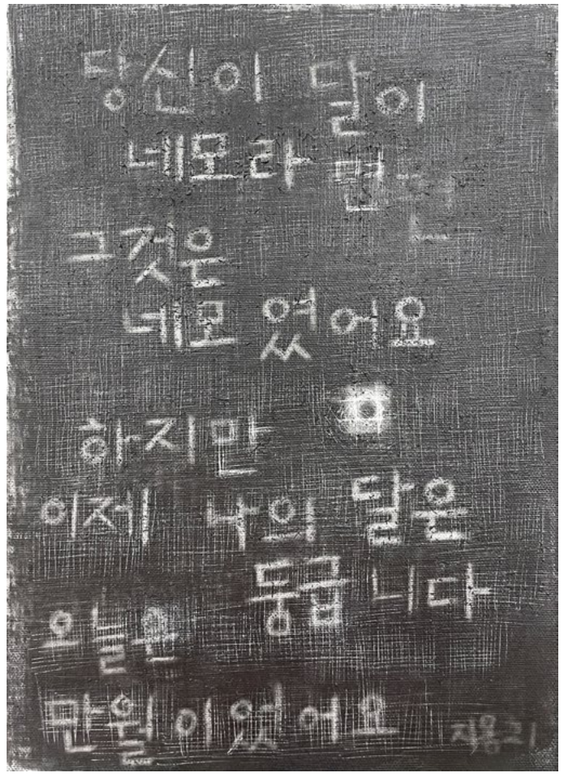
작가 Note > 17 ± 1 김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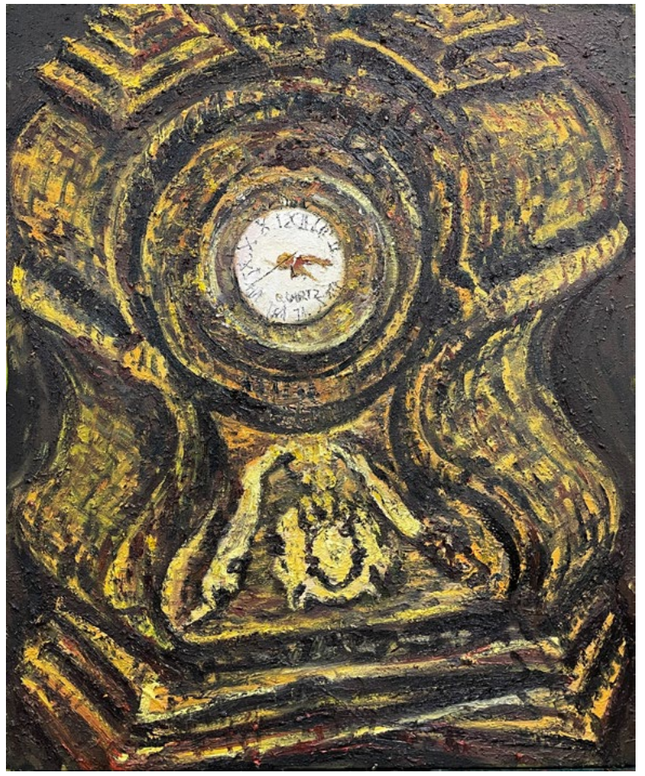
당신 말이 다 맞았고 옳았어요. 당신이 달이 네모라면 네모였습니다. 그랬던 건 당신이 정말 좋았고, 내 기준이 되어서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달은 둥급니다. 오늘은 만월이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커피 맛도 알아가고 술도 줄이려 하고 있어요. 늘 맨정신으로 사유하시기에 당신이 그렇게 총명했나 봐요. 맨정신일 때 생각은 더 맑고 건강함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재미있게 읽은 책들에 대해 설명할 땐, 눈앞에 모든 상황들이 생생하게 지나갔어요.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문학들을 다시 들춰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글을 잘 읽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아, 말도 잘 못해서 글도 잘 못 씁니다. 그냥 뭐, 거의 의식의 흐름이죠. 따듯한 라떼는 서른 살이 돼서야 거진 처음 시켜보는 것 같네요. 라떼는 말이야. 실없는 소리 죄송하고요. 요즘엔 커피집들을 다니는 재미가 생겼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날은 커피 맛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착각인가. 낮에 사람이랑 밥을 먹은 지가 정말 오래되었는데, 아니 밥이라는 것 자체를요. 그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끼니 잘 챙겨 먹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나는 브로콜리랑 두부를 무친 게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무친 듯이 좋은 날이었는데. 감자전도 완벽했고요. 아버지를 꼭 데려가보고 싶은 집이었어요. 주인 부부님이 직접 농사도 지으시고. 정말 하나의 작은 우주가 있었다니까. 아 그런데 그때는 저녁이었다. 대신 술을 안 먹었구나.

더이상 당신에게 밉보이긴 싫지만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아버지에겐 더 좋은 책을 권하고, 더 좋은 글씨를 받겠습니다. 당신이 버려야 하는 마음까지 내가 가서 받아야 하나요. 그런 일까지 할 여력은 저도 없습니다. 택배로 받기도 싫습니다. 알아서 버려주세요. 전 이미 당신이 남겨놓은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설령 그것이 좋은 것들 이어도 말입니다. 이건 더 버리기도 힘들고요. 그럼 실례 좀 하겠습니다.

‹작은 만월› 2021, 캔버스에 연필, 33.5×24.2cm
‹시계 2› 2021, 캔버스에 유채, 73×60.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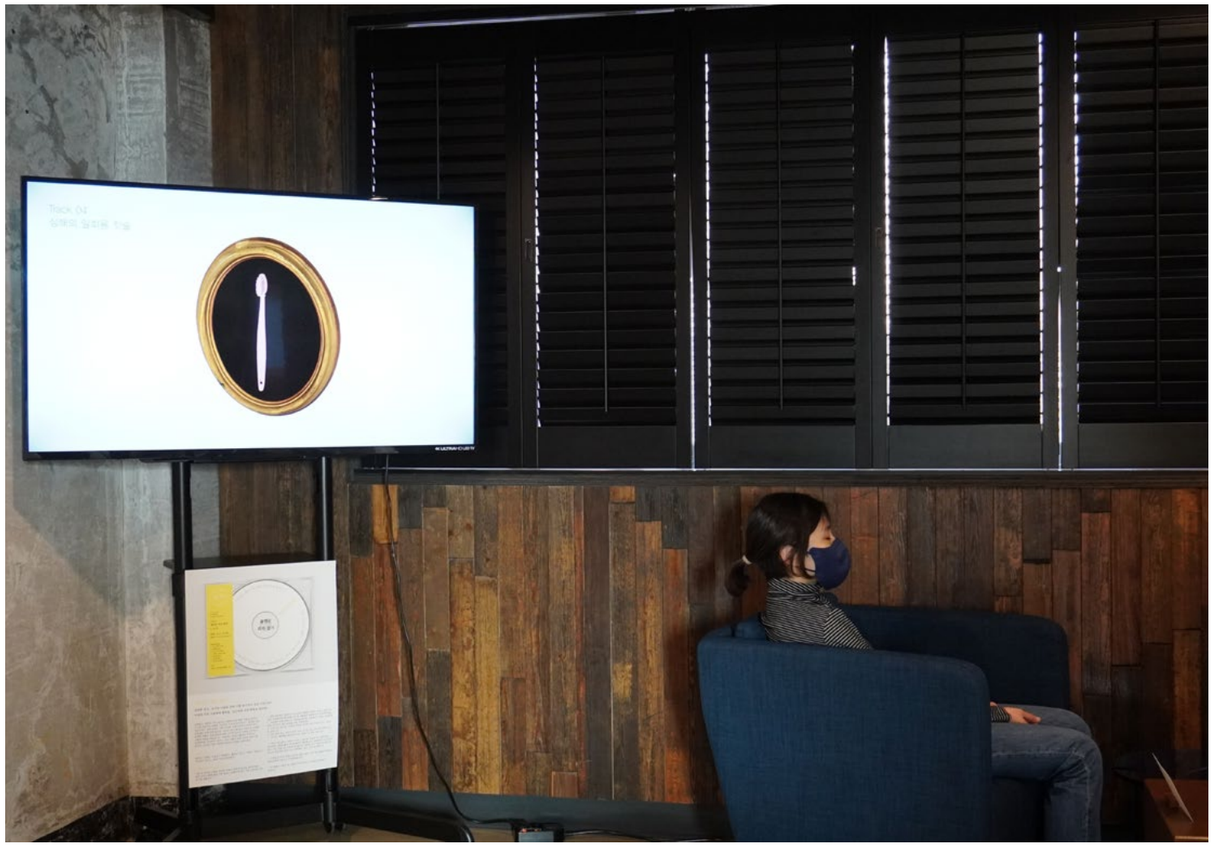




4. 사운드 앨범 ‹물건은 죄가 없지›

작가 윤수희
일시 2021.11.04.-11.30.

‹물건은 죄가 없지›는 이별 뒤 남겨진 사물을 위한 가상 음반이다. 아카이브 ‹실연수집›을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물품 또한 자신의 기능과 사용자와 이별을 하였다는 것에 착안해 그들을 위한 음원 트랙을 만들었다. 모티브가 된 물건은 니트 양말, 탱탱볼, 곰 인형, 일회용 칫솔, 전기 모기향, 종이학, 자전거 벨이다. 총 7트랙의 음원은 근 20여 년 전 반짝 유행했던 서브리미널 음반(다이어트, 집중력, 금연, 피부가 좋아지는 음반 시리즈)등의 소개 내용 형식을 빌려, 이별 뒤 남겨진 사물의 심신 안정과 기능 회복에 효력이 있는 가상 음반의 형태로 묶였다. ‹물건은 죄가 없지›라는 제목은 '부부 찻잔' 사연 글귀에서 따 왔다. 음원 일부는 박시호 배우의 공개 워크숍 ‹실연 요가 클럽›의 요가 음악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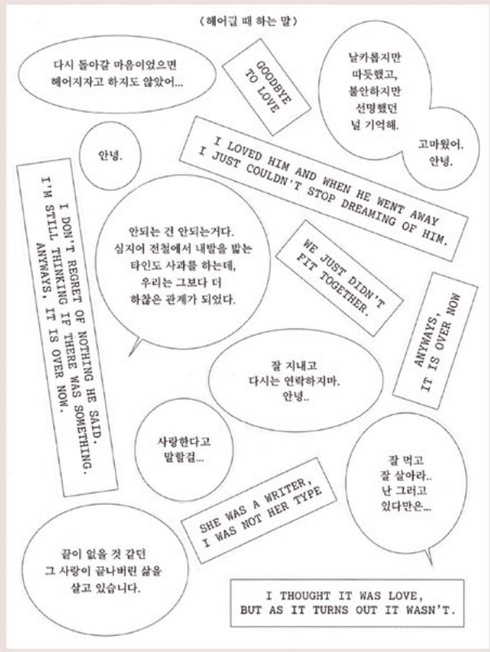
트랙 리스트
01. 니트 양말 속삭임
02. 탱탱볼 호흡
03. 다른 차원 곰돌이
04. 심해의 일회용 칫솔
05. 모기향 궁전
06. 종이학 체조
07. 자전거 벨 평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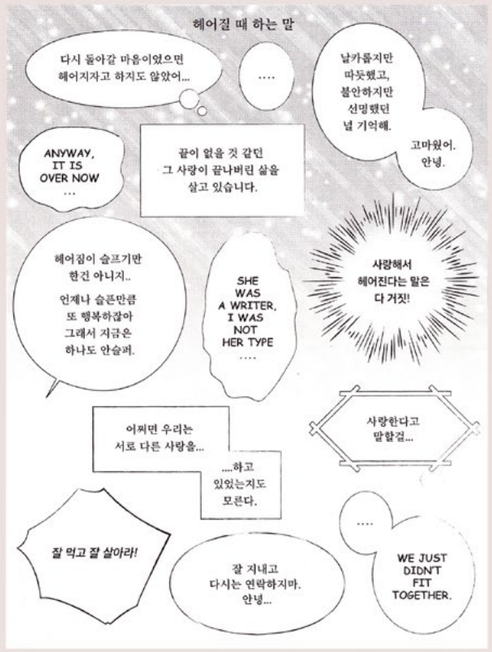
5. 출판『헤어질 때 하는 말』& 북 토크

작가 박혜수
일시 2021.12.08.
출판 갖고싶은책(서울)
디자인 신상아
제작펀딩 및 후원 텀블벅, 경기문화재단

‹실연수집›에 수집된 실연 사연과 물품 이미지 그리고 고(故) 임형태 사진작가의 미완성 사진으로 구성된 설문 에세이로, 일종의 설문 답변 편집본이다. 실제 사연은 전시장에 타자기를 설치하여 수집했는데, 해당 사연을 스캔하여 그대로 수록했다. 해당 사연들을 바탕으로 윤수희 작가의 음원과 안부 작가의 사진 작품 그리고 ‹add;실연› 공연이 이어졌다. 해당 에세이는 텀블벅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102명의 후원자 모집에 성공했고, 사연을 활용한 '실연키트'를 리워드로 제작하여 판매했다.

판매처 미술 책방(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이트블럭 온라인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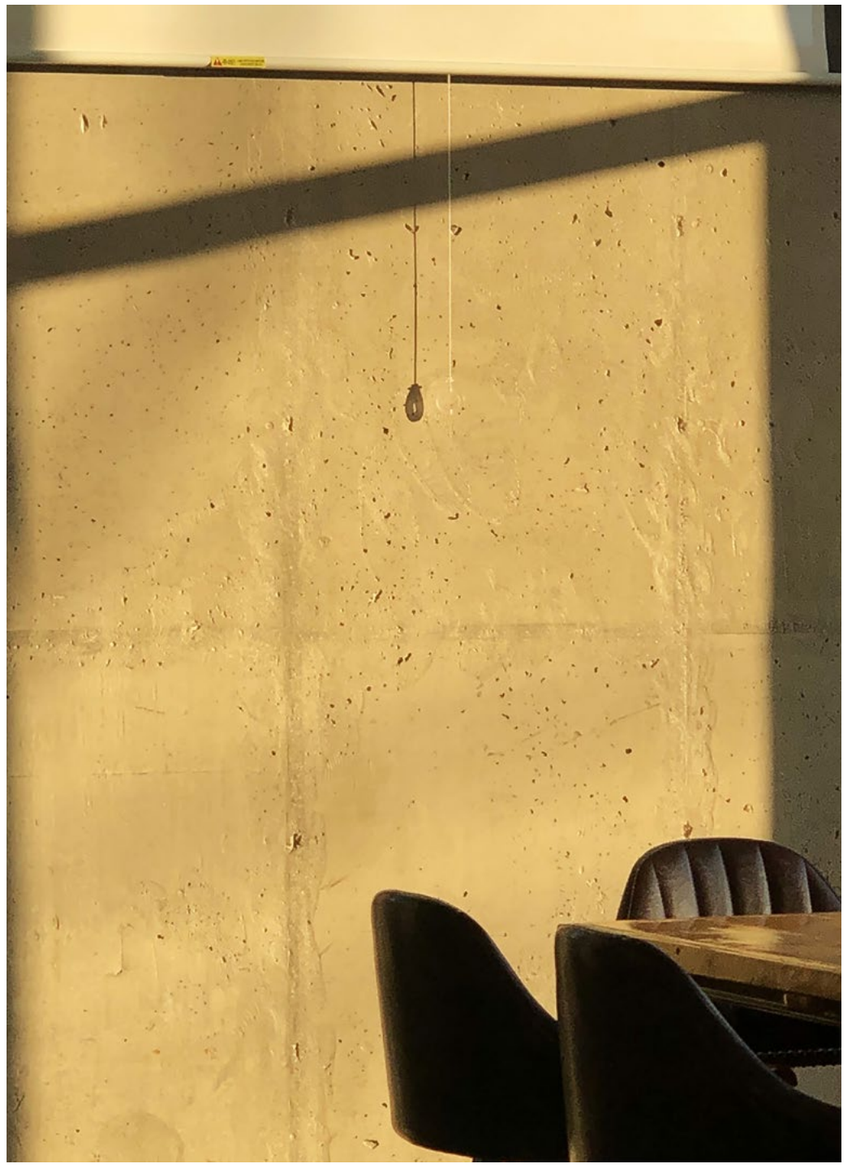
6. 전시 ‹서로;로서›

작가 안부
일시 2021.11.25.–12.22.

설문 에세이 『헤어질 때 하는 말』 사연을
바탕으로 안부 작가가 사진 작품으로
재해석했다. 고(故) 임형태 사진작가가
마치지 못한 사진들이 5년이 흘러 안부
작가를 통해 마무리되었다.

당신의 두 눈에
나지막한 등불이 켜지는
밤이면

그대여, 그것을
그리움이라 부르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 2021,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66.6×50cm

당신—김언
똑바로 보지 않고 얘기한다.
그는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다.
거기 내 얼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고 얘기하는 듯한 이 사람이
신기해서 묻는다.
누구하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는 똑바로 보지 않고 얘기한다.
당신이면 좋겠어요.

‹Excusez-moi› 2019,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52×40cm

먹지는 못하고 바라만 보다가 썩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내게도 있었지.

‹다시 여기› 2021,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66.6×50cm

7. 연극 ‹실연 요가 클럽›

작가 박시호
함께 하는 이 실연조작단(간호민, 이수현)
일시 2021.12.04.

윤수희 작가의 ‹물건은 죄가 없지›사운드에서 비롯된 요가와 티타임이 결합된 퍼포먼스로, 야매(?) 요가 강사인 박시호 배우가 실연과 관계된 요가 동작을 관객들과 함께 가볍게 진행하고, 짧은 티타임으로 실연 토크를 이어 나갔다.

“남잔 쌔고 쌨대, 여자 쌔고 쌨대”
—실연 요가 클럽 기본 정신 중

실연을 당했던 우리는 그 당시의 감정을 얼마나 어루만져 주었을까?
억지로 잊거나, 고통과 괴로움에서 빠져나오고자 다른 사랑을 찾아 승냥이처럼 헤매고,
역시나 별 대단한 사람 없다며 다시 실연의 고리에 빠져서 허우적대거나....
실연+요가=?
전혀 와 닿지 않는 이 두 단어를 합치니 Why Not? 이 되었다.

‹실연 요가 클럽 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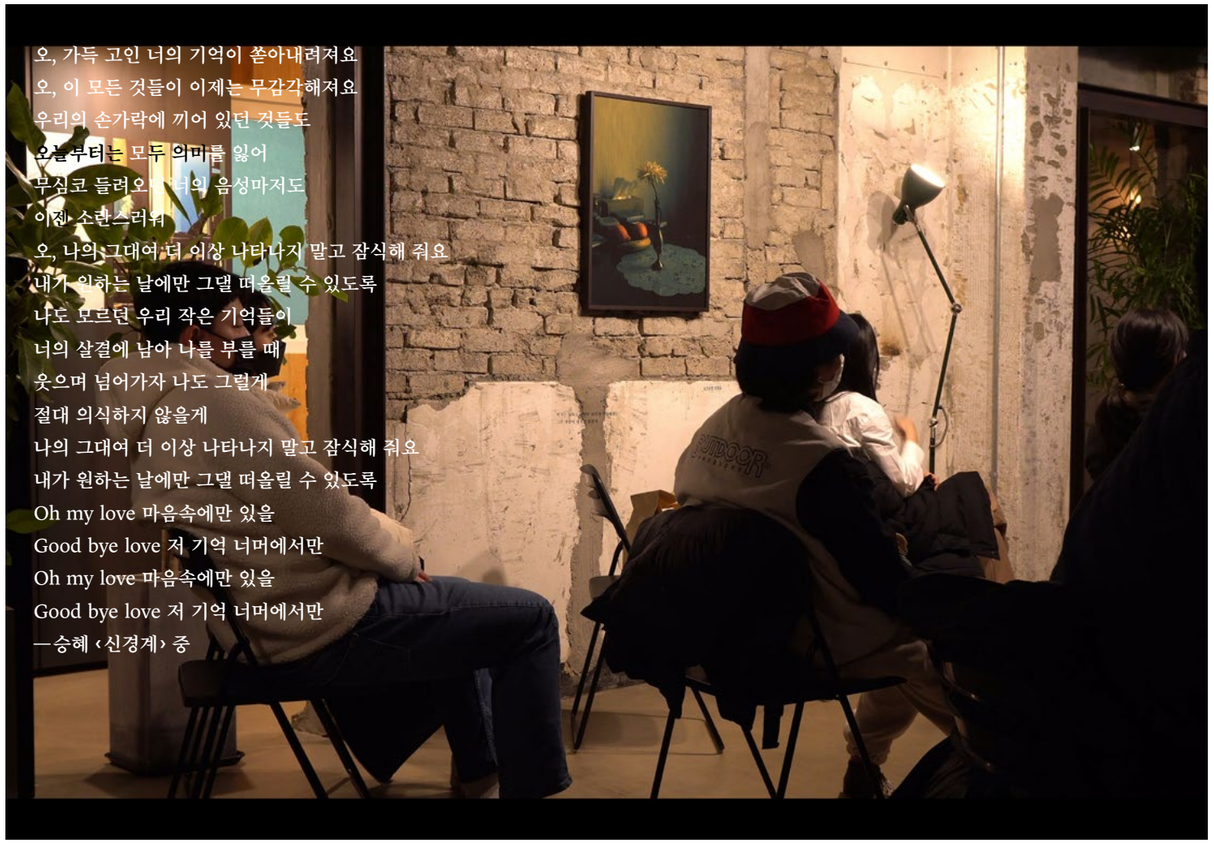
검지와 중지를 꼬아
SNS 금지 자세를 시작하자
다 벌어진 칫솔처럼
널부러진 마음을 괄약근부터 모아 세우자
어깨가 결리는 것은 미련 때문이요
허리가 구부정한 것은 집착 때문이라
돌보미와 함께 좌, 우로 구르며
‘미련-그만, 집착-버려’를 읊조리자
옆 사람과 매트 위를 뒹굴며 전우애를 느끼자
바람을 빼자, 집착을 덜자
서로의 평안을 빌며
남자쌨대. 여자쌨대.

8. 콘서트 ‹add;실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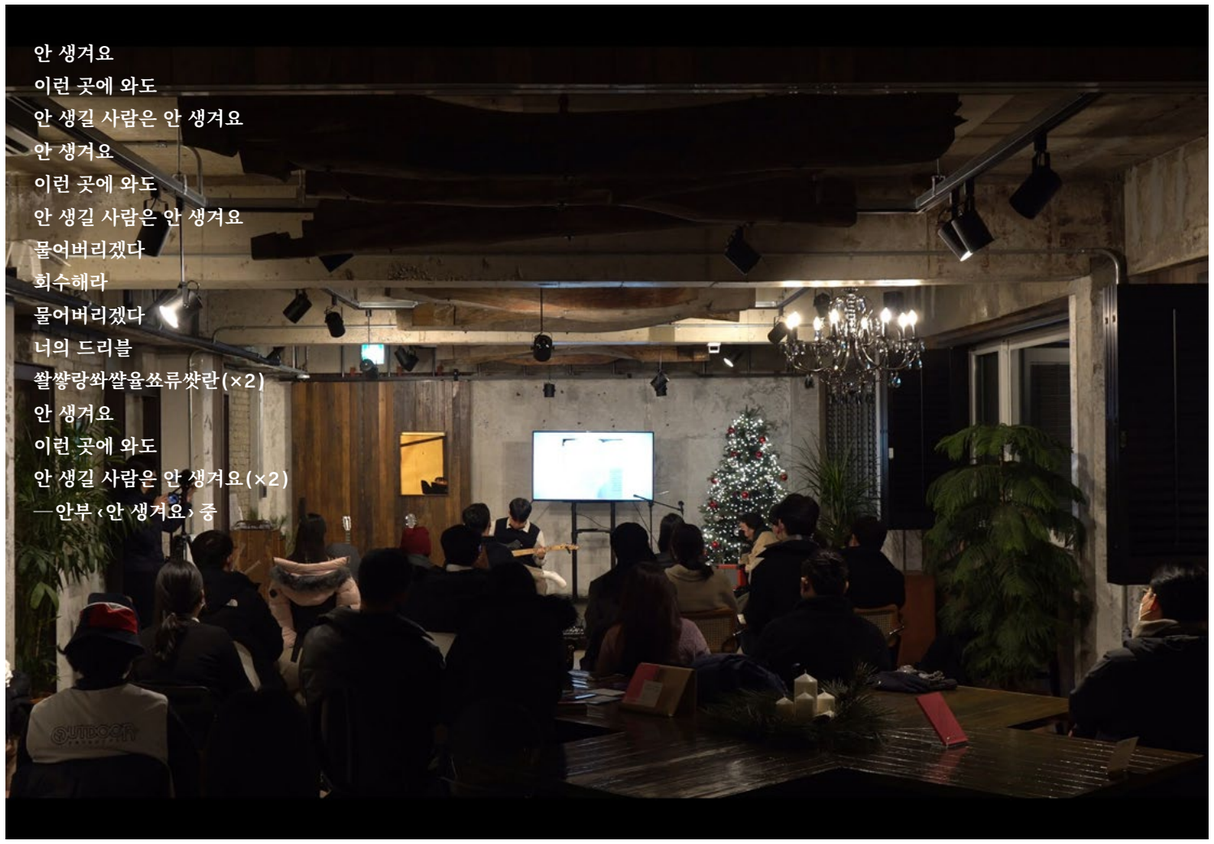
뮤지션 김라프, 김민석, 승혜, 안부
코러스 정지은 어시스턴트
일시 2021.12.18.

‹실연수집›의 사연과 물품을 소재로 4명의 뮤지션들이 통속적인 사랑 노래를 제작하여 발표하는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6개월간 진행한 Art D-RAM ‹실연활용법›의 연구를 마무리했다.

슬픈 사랑을 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
어차피 좋아질 거 없는 거 알지만
슬픈 생각들에 잠겨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왠지 난 너의 곁에 있는 것만 같아
난 사실
아프고 싶은 건지도 몰라
이 맘 사라지면 덩달아 너도 사라질까 봐
사실 난
힘들고 싶은 건지도 몰라
네가 보고 싶은 밤
난 또 버릇처럼 한없이 떨어지네
넌 어떻게 지내
—김라프 ‹떨어지네› 중



오, 가득 고인 너의 기억이 쏟아내려져요
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감각해져요
우리의 손가락에 끼어 있던 것들도
오늘부터는 모두 의미를 잃어
무심코 들려오는 너의 음성마저도
이젠 소란스러워
오, 나의 그대여 더 이상 나타나지 말고 잠식해 줘요
내가 원하는 날에만 그댈 떠올릴 수 있도록
나도 모르던 우리 작은 기억들이
너의 살결에 남아 나를 부를 때
웃으며 넘어가자 나도 그렇게
절대 의식하지 않을게
나의 그대여 더 이상 나타나지 말고 잠식해 줘요
내가 원하는 날에만 그댈 떠올릴 수 있도록
Oh my love 마음속에만 있을
Good bye love 저 기억 너머에서만
Oh my love 마음속에만 있을
Good bye love 저 기억 너머에서만
—승혜 ‹신경계› 중



안 생겨요
이런 곳에 와도
안 생길 사람은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이런 곳에 와도
안 생길 사람은 안 생겨요
물어버리겠다
회수해라
물어버리겠다
너의 드리블
쐴쌓랑쏴쌸울쑈류쌋란(×2)
안 생겨요
이런 곳에 와도
안 생길 사람은 안 생겨요(×2)
—안부 ‹안 생겨요› 중

왜 나는 너를 사랑했는가[1]

글 이상미(아트센터 예술의 시간 큐레이터)

"서로 겁도 없이 마음을 주는 일.
아직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느라 나를 잊었다."
—박혜수, 헤어질 때 하는 말[2]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 1969~, 스위스)은 그의 저서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2007)에서 탁월한 통찰력과 섬세한 감정 묘사로 사랑과 이별에 관해 이야기한다. 소설의 줄거리는 마치 막장 드라마의 내용 같지만, 철학적 사유가 담긴 문장을 곱씹으며 그의 글솜씨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주인공인 '나'가 되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시리고도 아픈 실연의 기억으로 수렴하게 된다. 십수 년 전 읽었던 이 책이 프로젝트 'Art D-RAM ‹실연활용법›'을 진행하며 떠오른 것은 수집 된 사랑과 이별의 사연이 그가 표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순수하면서도 치명적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시간을 초월해 여전히 유효한 감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큰 상처를 받고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사랑이 어느샌가 내 앞에 다가와 있듯, 이 진부하고도 통속적인 주제는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핵심이자 풀리지도, 풀 수도 없는 난제임이 틀림없다.

2021년 무더운 여름, 끈끈하고 질퍽한 이야기가 예상되는 주제로 5인의 작가가 모였다. 박혜수 작가는 '사랑'과 '실연'의 키워드로 프로젝트 Art D-RAM ‹실연활용법›을 기획했고, 협업 예술가로 김지용, 박시호, 안부, 윤수희가 참여해 박혜수 작가가 수집한 실연 사연과 물품을 소재로 2차 창작물 을 제작했다. 이는 2022년 아트센터 예술의 시간에서 예정된 개인전 « 모노포비아-외로움 공포증 »(2022)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실연 물품과 실연 사연을 수집해 시각화한 ‹Goodbye to Love›(2013~) 시리즈를 예정된 개인전을 통해 마무리한다. 시의성이 있는 주제로 사회 제도와 맥락을 비판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박혜수 작가의 작업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말랑말랑하면서도 진부한 주제는 의아함 마저 들게 했다. 하지만 실연 컬렉션의 활용 목적과 타 장르 예술가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최근 진행하는 프로젝트 ‹Perfect Family›(2019~)의 날 선 그것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감정의 본질에 주목하며 '사랑', '실연', '가족'이라는 보편성을 지닌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감정 회피 현상'을 드러내 거기에서 비롯된 파편들을 직조하며 종합하는 역할을 한다.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순간을 회피하며 난처한 상황으로 나를 내몰지 않는 것. 가족, 연인, 친구와의 관계에서조차도 어떠한 선(감정)을 넘지 않으려는 현상을 불편해하는 그의 태도의 근간에는 감정에 할애하는 에너지조차 힘겨워하는 무명인에 대한 관심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타인에 대한 정서적 방어막이 높아지면 이는 곧 비대면의 관계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2014년 개봉했던 스파이크 존즈(Spike Jonze, 1969~, 미국) 감독의 영화 ‹Her›의 주인공 '테오 도르'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실체가 없는 AI와 대화하고 일상을 공유하며, 심지어 사랑(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감정)에 빠졌다가 어느 순간 현실을 직시하고 실연의 감정을 느낀다. 합리적이고 서로에게 부담 없어 보이는 이 관계에도 결국 사람이 개입되면 감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실재와 가상에서 오는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은 고스란히 인간의 몫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에 픽션으로만 생각했던 스토리가 지금은 논픽션이 되었다. 최근 복고가 유행하고, 노스탤지어(nostalgia) 마케팅에 주목하는 현상도 애써 외면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닐까.

Art D-RAM ‹실연활용법›은 모든 참여자가 모여 자유로운 토론과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개별 작업 과정을 공유하는 '연구 모임'과 5인의 참여 예술가가 리서치한 결과를 발표하는 '공개 워 크숍'의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박혜수 작가는 실연 물품과 사연이 무겁지 않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나카시마 테츠야(Tetsuya Nakashima, 1959~, 일본)의 2006년 개봉작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을 추천했다. 그는 지금껏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슬픈 영화였다며 "맞아도 혼자인 것보다 나아."라는 주인공의 처절한 대사를 건네며 애정 결핍으로 자란 주인공의 사랑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꼬집었다. 랩(lab)에 비치된 실연 컬렉션뿐 아니라 영화, 책 등을 레퍼런스로 감정의 속성에 관해 탐 구한 그는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Elizabeth Kubler Ross, 1926-2004, 스위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다섯 단계의 심리 상태를 실연에 적용해 '부정-분노-협상-우울-수용'으로 구성한 디저트 세트를 '카페독산'과 협업해 개발하고 판매했다. 이는 첫 번째 공개 워크숍 ‹실연 극복 매뉴얼›로 이어져 해당 메뉴를 신청한 관객의 테이블에서 1:1로 연기를 펼치는 연극적 실험을 시도했다.

김지용 작가는 실연 컬렉션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화와 조각 작품을 제작했다. 회화와 조각, 글로 구성된 전시 형식의 공개 워크숍 ‹그리는 시, 기리는 마음›은 그의 개인적 경험과 부모님의 연애 시절 편지가 작품에 어우러져 여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전시였다. 동 세대의 평균적인 감수성과는 달리 이전 세대의 사랑 방식을 동경하며 자신이 현재에서 마주하는 사랑과 갈등을 은유적으로 보여주었다. 랩에 설치된 실연 컬렉션은 이러한 작가의 감수성을 극대화하는 부스터 역할을 하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연이 자신의 작품과 맞닿을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했다. 또한, 그동안 펼쳐왔던 회화 방식에서 벗어나 물성이 강한 회화와 조각으로 매체를 교차하며 형식적인 확장을 보여주었다.

배우 박시호는 박혜수 작가의 공개 워크숍 ‹실연 극복 매뉴얼›에 '실연녀' 역으로 참여했으며, 윤수희 작가와의 협업으로 연극 ‹실연 요가 클럽›을 공개 워크숍으로 진행했다. 윤수희 작가의 가상 앨범 ‹물건은 죄가 없지›의 트랙 제목이 모티브가 되어 윤수희 작가는 음악으로, 그는 배우로 참여했다. 이는 관객 참여형 연극으로 메인 강사역에 박시호, 실연 돌보미(보조 강사)역에 서포터즈 간호민, 이수현으로 구성되었고, 요가를 신청한 참여자들은 연극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럽게 요강 수강자 역을 맡게 된다. B급 코미디 같은 설정으로 실연 돌보미들은 요가 동작을 수행하는 참여자들에게 매우 진지한 태도로 다소 황당한 코치를 하며 무겁고 우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재치 있게 이끌었다. 요가 후 마련된 티타임(tea time)에서는 배우와 관객의 관계에서 벗어나 실연의 경험을 가진 당사자로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실연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 나가며 참여자들과 직접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부 작가는 사진전과 공연으로 두 번의 공개 워크숍을 진행했다. 첫 번째 공개 워크숍 ‹서로;로서›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수집한 실연 사연의 일부가 수록된 박혜수 작가의 에세이 『헤어질 때 하는 말』(2021)에서 발췌한 문구를 자신의 사진 작품과 연결해서 선보이는 전시였다. 전시 작품은 몇 년 전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박혜수 작가의 실연 물품을 촬영했던 고(故) 임형태 작가의 미완성 사진 작품을 염두에 두고 그가 그려내려던 작업을 상상하며 선택했다. 임형태 작가와 박혜수 작가 사이에서 추상적이지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어 했던 안부 작가의 노력은 ‹실연활용법›을 매개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사진작가의 시공간을 초월한 협업으로 귀결되었다. 두 번째 공개 워크숍 ‹add; 실연›은 인디 뮤지션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인디 뮤지션 김라프, 김민석, 승혜와 일시적인 밴드 '애드실연'을 결성해 각자 작사 작곡한 음악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무대를 가졌다. 3인의 인디 뮤지션은 실연 컬렉션을 모티브로 한 신곡을, 안부 작가는 음악의 전문성보다 프로그램이 주는 특유의 감수성에 주목해 실연 사연의 일부 그대로를 가사로 사용한 노래를 발표했다. 실연 사연에서 발견한 오타들 역시 그대로 살려 코러스나 후렴구에 사용하였는데, 서정적으로 흘러가던 공연은 그의 재치 있는 발상으로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었다.

윤수희 작가는 총 7개의 음원이 수록된 가상 앨범 ‹물건은 죄가 없지›를 발표하고 이를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공개 워크숍을 진행했다. 랩에 비치된 물품 또한 사용자와 이별했다는 전제를 설정하고, 약 20여 년 전 유행했던 서브리미널(subliminal) 음반의 홍보 형식을 차용해 이별 뒤 남겨진 물품의 심신 안정과 기능 회복을 상상하며 음반을 제작했다. 모티브가 된 니트 양말, 탱탱볼, 곰 인형, 일회용 칫솔, 전기 모기향, 종이학, 자전거 벨이 지닌 각 개체의 기능적 속성에 주목하여 이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활용했다. 가상 앨범 ‹물건은 죄가 없지›는 랩에 설치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었고, 각 트랙에 해당하는 실연 물품과 음원을 매칭한 영상을 제작해 스크리닝도 함께 진행했다. 일부 음원은 앞서 언급한 박시호 배우의 공개 워크숍에 사용되면서 협업 예술가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참여 작가 김지용, 박시호, 박혜수, 안부, 윤수희는 각자 자신이 가진 무기로 '사랑'과 '실연'을 해석했다. 보편성을 지닌 주제에서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이것에 대한 화두를 던지지만, 이를 매체 중심의 작업으로 소화해 내는 과정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고스러움이 무색하지 않게 그들은 각자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간의 협력과 협업으로 프로젝트의 밀도를 더욱더 촘촘하게 했다. 다원 예술의 지닌 장점을 '확장성'에 둔다면, 서로 다른 분야가 크로스오버(crossover)되고 각자가 지닌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이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그 장점을 최대치로 끌어 올렸다고 할 수 있다. 일상의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가능한 현시점에서 직접 마주하고 감정을 회피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옛날 사람의 촌스러운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다. 현재 상황과 약간씩 어긋나는 간극에서 용기를 넘어 무모함마저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 지점에서 그들이 감각하고 지향하는 예술의 실천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한 루프를 걸어 놓은 것처럼 애틋하고, 아프고, 시린 기억의 순환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했는가'를 생각해보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도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는 이 난제가 풀리지 않기를 바란다.

1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 정영목 역,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청미래, 2007의 책 제목을 차용 후 변경했다.
2 박혜수, 『헤어질 때 하는 말』, 갖고싶은책, 2021, p.30

기획 박혜수 **주최** 아트센터 예술의 시간 **장소** 카페독산(예술의 시간 3F) **일정** 2021.07.01.–2021.12.22. **참여작가** 김지용, 박시호, 안부, 윤수희 **진행** 이상미 **도움** 정지은 **교정/교열** 이상미, 정지은
서포터즈 간호민, 이수현 **협업** 김종성(카페독산 바리스타)/안정호(배우)/김라프, 김민석, 승혜(인디 뮤지션) **그래픽디자인** 신상아 **영상 촬영/편집** 서진 **후원** (주)영일프레시젼 **영상 기록 후원**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기획 박혜수 **주최** 아트센터 예술의 시간 **장소** 카페독산(예술의 시간 3F) **일정** 2021.07.01.–2021.12.22. **참여작가** 김지용, 박시호, 안부, 윤수희 **진행** 이상미 **도움** 정지은 **교정/교열** 이상미, 정지은
서포터즈 간호민, 이수현 **협업** 김종성(카페독산 바리스타)/안정호(배우)/김라프, 김민석, 승혜(인디 뮤지션) **그래픽디자인** 신상아 **영상 촬영/편집** 서진 **후원** (주)영일프레시젼 **영상 기록 후원** 서울시, 서울문화재단